

M 의료 라운지 Medical lounge

광주 미래로21병원 '개심술' 100건

전문화된 심장외과 팀 구성
인공심폐기 등 갖춰 98% 성공



그 동안 지역 내에서 활발하게 심장수술을 시행해 왔으며 2005년에는 세계 권위의 인명사전인 '마르퀴스 후스 후'에 등재되는 등 명성을 다졌다.

김보영 원장은 "광주·전남 지역 심장병 환자들이 서울에 있는 병원까지 찾아가지 않도록 더욱 안전하고 정확한 수술을 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광주 미래로21병원(대표원장 김보영·2006상·사진)이 최근 개원 2년여 만에 '개심술(開心術)' 100건을 돌파했다.

지방의 중형 병원으로는 흔치 않은 기록이다. 심장수술의 경우 위험하다는 인식과 함께 고도의 기술과 고가의 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일부 대학병원에서만 시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미래로21병원은 전문화된 3명의 흉부외과 전문의와 심장 전문 마취과 전문의, 인공심폐기사, 2명의 수술보조 간호사로 이루어진 별도의 심장외과 팀을 갖췄다.

류상완 원장의 경우 서울 아산병원 흉부외과 전문의 출신으로 전남대병원 임상교수를 거쳐 2005년 지역 최초로 미국 흉부외과 학회지에 논문을 실었다.

양기안 원장 역시 전남대병원과 순천의료원 흉부외과를 거쳐왔다.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심장 마취 연수를 받은 김훈정 원장은 심장 마취를 담당하고 있다.

김보영 원장은 전남대학교에서 흉부외과 전문의를 취득한 후 조선대학교 의과대학에서 교수를 거쳐면서

또 전문화된 수술장, 심혈관 집중치료실과 최신 기종의 심혈관 촬영장비, 이동식 심초음파기, 그리고 인공심폐기 등의 시술로 전체 심장 수술에서 98%의 수술 성공률을 기록할 수 있었다.

김보영 원장은 "광주·전남 지역 심장병 환자들이 서울에 있는 병원까지 찾아가지 않도록 더욱 안전하고 정확한 수술을 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서민정기자 viola@kwangju.co.kr



광주 미래로21병원 전경

화순전남대병원 '희귀난치성 시범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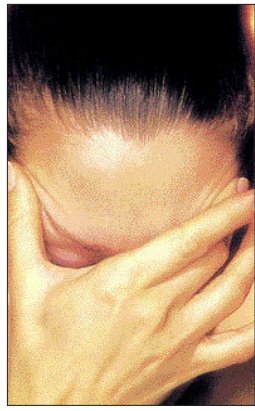
화순전남대병원이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가 추진하는 '희귀난치성 질환 지역거점병원 시범운영기관'에 선정됐다.

이에 따라 화순전남대병원은 병원 안에 의화상담실을 두고 담당 전문의인 고안호가 희귀난치성 질환에 대한 정보와 상담을 제공하며 보건소 기타 의료기관과 관련 질환의 진료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환자 의무기록 등을

통해 질환별 지역의료네트워크를 구성, 임상연구를 활성화할 예정이다.

'희귀난치성질환 시범운영기관'은 지방에 거주하는 희귀난치성 질환자들에 대한 신속한 진단과 지속적인 치료를 담당하기 위해 지정됐다. 전남대병원과 함께 충남대병원과 영남대병원 등 2곳도 이번엔 함께 선정됐다.

/서민정기자 viola@kwangju.co.kr



현대인의 질병 '두통'의 원인·치료

편두통, 지압·얼음찜질 효과있다



전남대병원 신경과 조기현 원장이 편두통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두통의 원리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위적령기자 jrwi@kwangju.co.kr

이선영(29·광주시 북구 용봉동)씨는 2년째 두통에 시달리고 있다. 시도때도 없이 찾아오는, 머리가 깨질 것 같은 두통 때문에 노이로제에 걸릴 것 같다. 습관적으로 진통제를 먹다보니 이제는 위장까지 나빠져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다고 호소한다. 두통은 도대체 왜 올까? 그 정체를 무엇일까? 두통은 90% 이상의 사람들이 경험할 정도로 흔한 질병으로서, 여자의 경우는 66%, 남자는 57%가 1년에 1회 이상 두통을 경험한다고 한다.

◇10명중 6명이 1년에 한번 이상 겪는다=10명 중 8~9명(87.8%)은 두통을 느낄 때 임의로 약국에서 진통제를 사먹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있다. 그만큼 두통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흔히 경험하는 신체이상 신호라는 얘기다. 두통은 뇌 자체의 원인으로 생기는 1차성 두통과, 병이나 사고로 생기는 2차성 두통으로 나뉜다. 1차성 두통은 다시 스트레스로 인해 생기는 긴장성 두통과 원인이 불분명한 군발성 두통 및 편두통으로 분류된다.

전 인구의 90% 이상이 경험

◇가장 흔한 형태, 긴장형 두통=흔한 말로 '신경이 쓰인다'는 생각과 함께 찾아온다. 주로 관자놀이, 뒷목, 머리의 뒤쪽, 어깨 등이 빠근하면서 통증을 유발한다. 심한 경우 구토 증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 통증은 몇 시간 내에 사라지기도 하지만 몇 일, 몇 주, 심한 경우에는 몇 달씩 지속되기도 한다. 주로 아침보다는 오후에 시작되고 즐거운 일이 있거나 동료들과 어울려 차를 마시거나 기분 전환이 되면 증상이 사라지는 것이 보통이다. 머리에 특별한 원인이 있어서 발생하는 두통이 아니기 때문에 대개는 약물을 복용하지 않아도 되지만 심한 경우 진통제가

과로·감정문제·고혈압 등에 의해 발병
진통제 2주이상 복용땐 내성 생겨 금물

필요할 때가 있다.

◇'머리가 욱신거린다' 편두통=20~30대 여성뿐만 아니라 40대 이후의 여성이나 남성에게도 흔하게 발생한다. 편두통의 특징은 한쪽 머리가 콧속 주시는 박동성 통증이다. 흔히 "머리가 욱신거린다" "딱따구리가 관자놀이를 부리러 찌는 것 같다"라는 표현이 박동성 통증을 표현한다. 편두통에서 통증의 정도는 매우 다양해서 가벼운 두통에서부터, 아무런 일도 하지 못할 정도의 심한 두통이 발생하며 대개 몇 시간

에서 3일 정도 지속된다. 편두통 환자들은 두통이 있을 때면 소화가 안되거나 속이 메스꺼워지고 심하면 구토가 발생하기도 한다.

편두통의 고통이 찾아오면 우선 밝지 않고 조용한 곳에서 휴식을 취하고, 두통이 있는 부위를 지압하거나 얼음찜질을 해주면 좋다. 커피가 일시적으로 효과를 나타내기도 한다. 흡연이나 피임약 등 두통을 유발하는 약물은 금하는 건 기본.

◇치료는 어떻게=두통 발작시 치료는 일반

적인 진통제는 효과가 없고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신경전달물질을 조절하는 트립탄 등을 사용하는데 초기에 사용해야 효과적이다. 두통이 심해지면 타이레놀과 같은 진통제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두통을 쉽게 멈추게 할 수 없다.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심한 두통이 한달에 2차례 이상 발생하면 이를 예방하는 조치를 취한다. 편두통의 치료와 예방에 관해서는 개인적인 차이가 많으므로 신경과 전문의의 자문을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잘자고 운동으로 스트레스 풀어야

◇진통제에 의존하는 것은 위험=진통제 과다복용을 경계해야 한다. 의사처방 없이 약국에서 쉽게 구입해 무심코 복용하는 진통제가 오히려 두통을 더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진통제를 너무 많이 복용하면 뇌에서 통증을 억제하는 신경전달물질인 '세로토닌'이 조금씩 사라져 두통에 대한 반응이 더 예민해진다. 신경이 예민해지면 신경에 염증과 흥분반응이 잘 생기고 뇌혈관이 확장되며 통증을 유발하는 물질이 많이 분비된다.

타이레놀 같은 단순 진통제는 1주일에 5일 이상, 케보린 등 카페인 함유된 두통약은 1주일에 3일 이상, 또 편두통 치료제나 마약성 진통제는 1주일에 2일 이상 복용하면 두통이 생길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진통제를 주당 10일 이상 1개월 이상 복용하면 원래 환자가 겪던 두통의 형태가 바뀌면서 거의 매일 두통이 유발되기도 한다.

/서민정기자 viola@kwangju.co.kr

(도움말=전남대병원 신경과 조기현 교수)

수해지역 주민 건강관리 요령

중부지방과 강원도, 서울·경기 지역에 집중 호우가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장마전선이 광주·전남지역으로 남하하고 있어 또다른 수해가 우려된다. 수해지역 주민들은 접촉성 피부염과 곰팡이 감염 등의 피부질환에도 노출되기 쉽다. 또 화장실의 분뇨와 생활하수, 가축 등의 분뇨가 물에 떠다니면서 각종 생활오염, 음식물 등을 오염시키기 때문에 각종 전염병이 발생하기 쉽다.

수해지역 주민들의 건강관리 요령을 살펴본다.

◇피부에 오염물질 닿지 않도록 해야=가

"식수 끊어 먹고 식기·이부자리 소독
복구 작업땐 장화·장갑 착용 필수"

촉 촉사 근처 주민들은 접촉성 피부염과 함께 감염성 피부염에도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 증상은 피부가 가렵고 따가우며, 발갛게 반점이 생기고 부풀어 오르는 증상이 많다. 또 다친 피부에는 세균이 침범해 끓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물에 노출된 피부나 다친 부분은 흐르는 깨끗한 물에 열심히 씻어내고 다친 부분은 즉시 소독을 해야 한다.

◇수해 2~3일 뒤에는 '수인성 전염병' 조심= 오염된 물이나 상한 음식물을 통해 전염

되는 수인성 전염병은 증상이 아주 심하게 나타난다. 설사량이 많고 열이 나며, 오한과 구토, 복통, 무기력증 등의 증상을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앓는다면 수인성 질환을 의심할 수 있다. 이때는 우선 환자를 병원에 입원 격리시키고, 금식한 후에 치료를 받아야 한다.

◇수해 1주일 뒤에는 '호흡기 질환' 조심=보온이 잘 되지 않고 습기가 많은 곳에서 물에 젖은 몸으로 오래 지내다 보면 체온변화가 많아지면서 감기나 폐렴 같은 호흡기 질

병이 많이 생긴다. 저변 이후에는 가급적 보온을 충분히 하고 따뜻한 보리차를 많이 섭취하면서 호흡기 질환을 예방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농촌 수해지역은 '렙토스피라증' 주의=렙토스피라증은 야생동물의 배설물에 들어 있던 균이 오염된 물에 섞여있다가 농부들이 피부를 긁거나 다치면 그 상처를 통해 들어와서 일으키는 병이다. 이 병에 걸리면 고열과 오한, 근육통이 심해지고 간이나 폐에 합병증이 생겨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 따라서 수해가 지나간 후에 쓰러진 버를 일으키는 작업을 할 때 장화나 장갑은 필수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서민정기자 viola@kwangju.co.kr

Large advertisement for 'Dongyang Super Night Club' (동양 슈퍼 나이트클럽) featuring a performance by Song Daegwan (송대관) on July 19-20. The ad includes images of the club's interior and various entertainment activities.